

Artist's Statement

Name : Yangachi

Nationality: Korean

E-mail: root@yangachi.org

양아치는 '가상 - 잠재적 힘'이라는 화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은 현실과 다르게 직접적인 힘과 구체적인 질서를 보여주지 않는 대신, 풍부한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직접적인 힘과 구체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대신, 풍부한 상상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양아치는 가상과 현실의 흥미로운 간극에 주목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첫 작업은 웹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작업을 할 때 웹 공간은 가상의 공간으로서 적절한 예로 언급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상이라는 주제를 웹 공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한 것이, 양아치 조합(2002)과 전자정부(2003)입니다. 양아치 조합은 가상의 쇼핑몰의 모습을 빌어 작업을 했습니다. 양아치 조합은 남한사회의 모습을 온라인 쇼핑몰로 보이도록 하여, 웹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하여도 여전히 자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남한 사회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감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작업입니다.

작업의 화두인 가상은 감시와 연계되는데, 현실의 질서를 위한 시스템으로서의 감시는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이 될 수록 강화됩니다. 적절한 예를 찾아본다면, 감시 카메라 설치가 도시 곳곳에 된다는 점입니다. 직장, 학교, 거리는 물론, 개인 소유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감시 카메라는 현실의 질서를 위해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작가로서 현실의 질서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방법적으로 설명한다면, 감시 카메라의 송수신기를 역이용해서 감시 카메라 관리자의 영상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알려진 영화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제작된 것이 감시 드라마 시리즈(2005 ~ 현재)입니다. 감시 드라마는 스타워즈, 킹콩, 킬빌, 007과 같은 알려진 영화의 장면을 패러디하며 감시 시스템에 대한 관점을 환기시킵니다.

가상은 이야기와 연계됩니다. 이야기는 가상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적절하기에 이야기를 작업에 중심에 둡니다. 이야기로서 첫 작업은 미들 코리아 시리즈(2008 ~ 2009)입니다. 미들 코리아 시리즈는 김씨 가족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김씨 가족이라는 상징을 통해 여전히 남아있는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질문을 해봅니다. 1편에서는 '파괴', 2편에서는 '교란', 3편에서는 '신세계'를 주제로 내세워,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미들 코리아 시리즈 1편(2008)은 현실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미가제 바이크'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가미가제 바이크'는 현실 세계를 파괴하는 오브제로서, 현실 세계의 하위 계급자들에 의해 현실의 세계는 파괴됩니다.

미들 코리아 시리즈 2편(2008)은 현실 세계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에는 '루머 건'이 등장합니다. 루머 건은 현실 세계를 하나의 소실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등장 인물에 의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루머 건에 의해 현실 세계가 교란되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미들 코리아 시리즈 3편(2009)의 주제는 '신세계'입니다. 1, 2편에 소개한 것처럼 이야기 속 현실의 세계는 파괴되고, 교란되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세계를 열어가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김씨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의 배경에는 현실의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동북 아시아의 지역의 정치, 사회, 역사적 상황이 1950년대 이후로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이야기 속 김씨 가족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DMZ 지역에 존재하는 미들 코리아에서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오브제들을 제작합니다. 모든 오브제의 목적은 기존의 세계를 파괴, 교란 그리고 신세계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상의 국가 미들 코리아, 김씨 가족 그리고 관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 미들 코리아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미들 코리아 시리즈 이후 이야기에 더욱 집중합니다. 그리고 작업한 것이 '그럼에도 빙의소녀 (憑依少女), 2009'입니다. 이 작업은 소설 형식을 통해 작업 한 것으로, 시각 작업이 아닌 문자 기반의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서의 이야기는 이준호라는 주인공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의 풍경을 그리는 것입니다. 주인공 이준호는 현실세계의 한계를 맞이 할 때마다, 빙의가 되어 다른 존재로 등장합니다. 주인공 이준호는 현실세계의 질서 속 인물이자 현실세계를 벗어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를 그려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상 - 잠재적 힘'은 다양한 형식을 빌어 작업화되었는데, '양아치 조합(2002)', '전자정부(2003)'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당시의 현실을 비춰볼 수 있도록 하였고, 감시 드라마 시리즈(2005 ~ 현재)는 미디어 시스템에 개입하여, 현실 세계 속의 질서를 타자화하여 관망하도록 작업하였고, 미들 코리아 시리즈(2008~ 2009)를 통해 현실 세계의 질서를 이야기로 보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빙의소녀 (憑依少女), 2009'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로 가상이 잠재적 힘으로서 가능성을 타진해보려 했습니다.

'가상 - 잠재적 힘'이란 주제는 다양한 형식과 조건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하는 것이 유효한 의미 혹은 무효한 의미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과 가상 사이를 넘나드며, 어떠한 상(像)을 발견한다면, 흥미로운 것이겠죠.